

# 예술가라는 존재



홍경안 역  
시시일각

예술가라는 이유만으로도 특별하게 예우한다는 한국의 이주 작가의 오래전 발언이 문득 떠올랐다. 그는 자신이 거주하는 공동체 구성원 대부분이 우리네 삶의 질을 높이는 존재로 (예술가들) 대우하기에 금지와 자부심을 잃지 않는다고 했다.

부럽다. 한국은 조금 다르기 때문이다. 일단 예술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한량(閑良)에 준한다. 사회적 신분은 그저 그렇고 지위 역시 불안정하다. 아직도 누군가는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자발적 무직자' 정도로 본다. 가난하게 살면서 쓸모없는 일을 하는 부류로 단정하기도 한다.

가난한 건 맞다. 남들의 두어 달 월급이 연간 수입이니 그럴 만도 하다. 이는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인 실태조사'(2021년, 14개 예술 분야 5000명 대상) 결과에 따르면 월 평균수입이 100만원 이하라고 응답한 예술인이

86.6%에 달했다. 연간 평균 수입이 755만원에 불과했다.

가난한 건 분명하나 예술가들이 낮고 있는 건 아니다. '스타벅스'엔 감히 갈 수 없으나(국민의힘 한동훈·장예찬과 같은 천박한 계급주의자들의 말에 의하면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의 서민이 스타벅스를 이용하는 건 사치다) 경제적 안정을 위해 무던히 애쓴다.

녹록하지 않다. 누구나 제프 쿤스(Jeff Koons)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깨닫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돈 좀 벌겠다고 미술시장을 기웃거리지만, 괴롭다. 미적 신념은 무너지고 심적 체제의 붕괴를 느낀다.

당장 해결해야 할 민생고 문제와 무관하지 않은 현실은 쓰다. "팔기 위해 만들지 말고 만든 것을 팔아야 한다."는 말은 야속하다. 예술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실질적인 위협으로서의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나'라는 정체성마저 혼란스럽게 만든다.

모든 게 어렵다. 선택은 쉽지 않다. 예술가로서의 삶과 생활인으로서의 삶을 병행해야 하기에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예술가들은 예술을 한다. 배짱이 같은 존재라

고 폄하해도 그림을 그리고 작업이란 것을 한다. 거부할 수 없는 운명에 따라, 알 수 없는 이유로,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서.

일부는 예술이 다른 분야처럼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유용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예술작품이 인간의 경험과 감정, 문화에 미치는 영향은 부인할 수 없다. 예술가의 인격과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는 창조적 활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과 쓸모없는 일을 구분할 줄 안다.

예술가는 역사와 사회적 변화를 기록하는 존재다. 기존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문화와 사회의 진화에 기여한다. 그들의 작품은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며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이처럼 예술가는 문화적, 정서적, 지적 발전에 필수적인 통찰력을 제공하고 인간 경험의 풍부함과 다양성에 도움을 준다. 작품을 통해 구성원 간 공감과 연결을 촉진하면서, 경제의 중요한 기여자로서 위치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것만으로도 우린 그들이 우리 사회에서 꽤나 중요한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만큼 자긍심과 보람을 갖도록 독려해야 옳다. /미술평론가

# 코리아 디스'카운트다운' 시작



김지수 집  
신하은 (자본시장부)

최근 정부는 증시 부양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처음으로 참석한 자리도 증시 개장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과 달리 국내 증시는 '연초 효과'도 받지 못한 채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웃 나라인 일본 증시가 강세를 보이면서 더욱 희비가 교차되는 모습이었다.

한국 경기에는 '카운트다운'이 울리고 있다. 돌고래를 찾아야 할 시점에서 정부가 주목한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로 보여진다. 코로나19 당시 대규모의 개인 투자자들이 유입됐다고는 하지만 정작 국내 증시는 하락세를 견고

있다. 1400만명 개미(개인투자자)들의 생존에도 국내 증시가 투자 매력을 잃은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그 이유를 면밀히 따져야 한다.

자본시장연구원이 전 세계 주요 45개국과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PBR(주가순자산비율)은 선진국의 52%, 신흥국의 58% 수준이다. 국내 주식의 저평가 요인 중 하나인 미흡한 주주환원, 낮은 주주 가치 인식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던 문제 중 하나이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주주환원의 중요성을 상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본다.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예고하자 상장사들은 자사 주 소각 등을 포함한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표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박스권에 갇혀 있던 코스피를 2600선으로 끌어올리기도 했다. 명절 시즌으로 인한 숨고르기 장세의 기미도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상향 그래프로 전환된 그림이 나타나고 있다.

이제 문제는 앞으로다. 이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유행적인 정책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당부를 신중히 반영해야 한다. 2차전지와 같은 저PBR 테마주 사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아직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이 확정되지는 않은 만큼 우려의 시각들도 존재하고 있다. 기업의 제도 개선이 먼저냐, 상속세 규제 완화가 먼저냐는 대립부터 다양한 제도 개선의 연결고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총선 전까지 시행될 수 있는 규모의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총선용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필자는 포퓰리즘을 염두한 단기적인 카드가 아닌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godhe@metroseoul.co.kr

## 오늘의 운세 2월 8일 (금 12월 29일) http://www.saju4000.com

- 36년생** 재성에 흉살이 있으니 금전적 손해가 없도록, **48년생** 침착하게 대하여 오해가 없도록 할 때다. **60년생** 작은 약속을 어기는 것도 신뢰의 줄을 끊는 것이다. **72년생** 생 화합을 하니 일도 수월하다. **84년생** 남에게 싫은 소리가 어렵다.
- 37년생** 현실을 직시하고 눈높이를 낮춰 생활할 때. **49년생** 방심하여 산재 사고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자. **61년생** 역마살이 동하여 지방 출장 수가 있다. **73년생** 정겨운 대화로 연인의 사랑을 확인할 기회이다. **85년생** 고개를 숙여라.
- 38년생** 사업가의 생명은 신용을 지키는 것이다. **50년생** 동업자와 화합이 되어 일이 순조로운 하루가 된다. **62년생** 일의 마무리가 될 땐 상태이니 새로운 계획은 내일로. **74년생** 선배의 조언을 경청. **86년생** 남편이 자영업을 한다는데.
- 39년생** 새로운 일의 도전장을 제시하는 날. **51년생** 오늘은 용이 승천하는 기분으로 일하라. **63년생** 기회를 왔을 때 잡을 능력이 있어야 한다. **75년생** 잠재돼 있던 능력을 발휘하여 주변 인정을 받으려 하자. **87년생** 좋은 출발이 기대.
- 40년생** 후한 끝은 있어도 바한 끝은 없다. **52년생** 사랑으로 가족을 대하면 매사 평온하다. **64년생** 상대방에게 불만이 있어도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때. **76년생** 새로운 이성을 만나 사랑이 주위를 맴돈다. **88년생** 마음의 평정을 이루자.
- 41년생** 대인관계에서 마음을 총게 먹어야 적이 없다. **53년생** 모든 피성을 조심해야. **65년생** 새 인연으로 새로운 거래가 생기는 시기. **77년생** 일시적 감정이 도를 벗어나 체면을 꺾일 수 있다. **89년생** 새로운 모임과 인연 만남 자제.
- 42년생** 서로 격한 언쟁은 달걀로 바위 치는 격이다. **54년생** 독존적 생각으로 함부로 행동하면 손해나다. **66년생** 농친 고기가 더 커 보는 법이다. **78년생** 지출과다를 잘해서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도록. **90년생** 주식의 이익만 보면 위험.
- 43년생**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취할 때이다. **55년생** 갑자기 격한 운동은 오히려 해가 된다. **67년생** 말실수로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격이다. **79년생** 무언가를 새로이 준비하는 날. **91년생** 이직문제로 아침부터 배우자와 충돌하지 않도록.
- 44년생** 운이 호전되어 금전과 사랑이 따르는 하루. **56년생** 상부상조하는 마음이 건강의 요소다. **68년생** 신세를 진 사람의 빛은 꼭 감도록 해야 일이 생긴다. **80년생** 매사에 긍정의 마음이 행운을 부르는 출발이 된다. **92년생** 이사로 고민.
- 45년생** 오랫동안 기다린 보람으로 계약이 이뤄지는 날이다. **57년생** 들뜬 마음에 거친 바람이 부는 격이니 마음잡기 어렵다. **69년생** 기분 변화의 기복이 큰 하루. **81년생** 인내로 주변과 다투지 마라. **93년생** 동료와 뜻을 맞추니 보람찬 하루이다.
- 46년생** 앞뒤로 질 받기 식의 형식적인 대접은 사양하라. **58년생** 기쁨은 사물보다 내 안에 있음을 알자. **70년생** 내가 심은 나무가 그늘을 만들어 남을 쉬게 한다. **82년생** 조화를 갖자. **94년생** 부치는 무리한 일의 진행은 몸 상태 허약길이다.
- 47년생** 삶을 뒤돌아보는 시기다. **59년생** 즐거운 마음이 건강 유지의 촉진제가 된다. **71년생**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타고 나갈 때다. **83년생** 이성과 만나는 날이니 감정 조절을. **95년생** 쇼핑가서 이것저것 사느라 돈 낭비하지 말고 적금을 들여라.



# 김상회의四季 보시와 공덕

복지센터에 해마다 몇천만 원씩 가져다 놓는 사람, 작은 가게를 하면서 역대 돈을 기부하는 사람이 있다. 살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돈을 내놓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뉴스에서 종종 듣는다. 자기도 살기 힘들면서 어려운 사람의 손을 선뜻 잡아주는 사회의 의인이다. 작년에 미국에서는 평생 10조 원의 돈을 기부한 세계적 부호가 세상을 떠났다. 그는 부호이면서 작은 임대아파트에서 살았고 죽기 전까지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다고 한다. 남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마치 자기 일처럼 생각하는 선행이다.

이런 선행은 불교에서 말하는 무주상보시와 같다. 무주상보시는 남에게 베풀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한 톨의 자만한 마음 없이 온전한 자비심으로 남을 위하는 것이니 진정한 의미의 보시이다. 상담을 청하는 분 중에는 자녀들의 앞날을 걱정하는 경우가 늘 있다. 자녀가 살아가면서 큰 어려움은 없었는지 궁금해하고 운세가 잘 풀려나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를 묻는다. 그런 상담을 할 때마다 한없는 부모 사랑을 느낀다. 자녀들의 운세는 사실 미래의 일이다.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지금 대처할 방법은 딱히 없고 기다리는 것이다.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공덕을 쌓는 것이다. 내가 공덕을 쌓으면 그 공덕은 자녀들의 운세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자녀들에게 다칠 액운을 막아주거나 복을 끌어 온다. 손쉬운 공덕 쌓기는 내 주변 둘러보기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는 마음이다. 세상에 감동을 주는 기부자들이 공덕의 힘을 바란 것은 분명 아니다. 애뜻하고 순수한 마음이 앞섰을 것이다. 그런 사람처럼 커다란 마음을 내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만큼의 마음을 내는 것, 그런 마음이 앞길에 원만한 운세를 만들어 줄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X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7	3	8		5	6	1	
	1		3				
6			4		9		
			4	7		2	
		1			6		
2			6	3			
	2		3			6	
				4	2		
8	6		9		5	1	3

###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드의 알도그램을 즐기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8	1	9	2	6	7	9	8
2	8	7	1	9	6	5	9
9	7	6	8	5	2	1	2
6	8	2	9	1	9	7	2
7	8	9	2	8	1	2	6
2	9	1	6	2	7	9	8
8	6	8	1	7	2	6	9
9	2	9	8	6	1	7	7
1	9	7	6	2	8	8	2